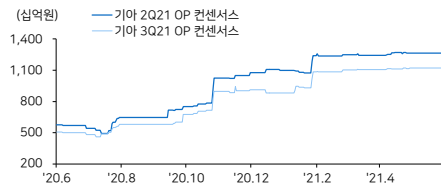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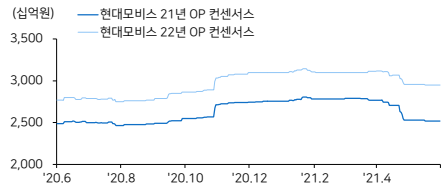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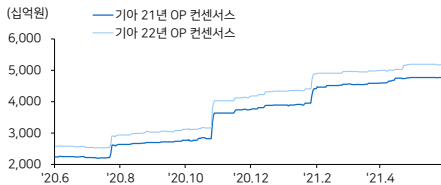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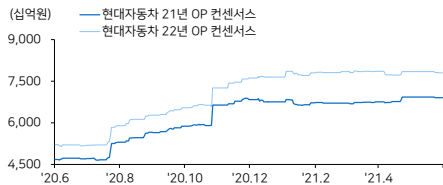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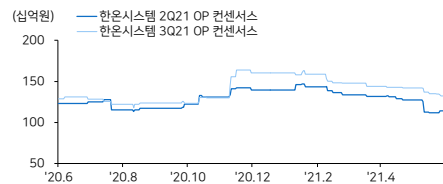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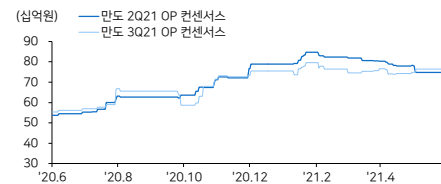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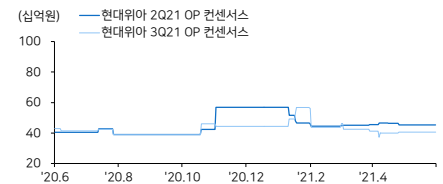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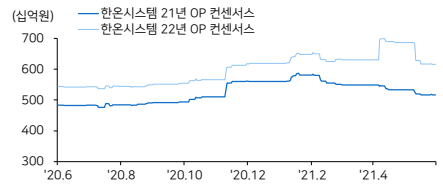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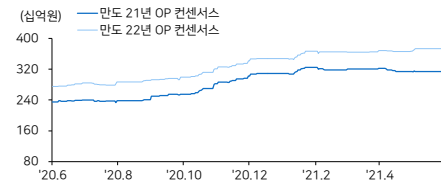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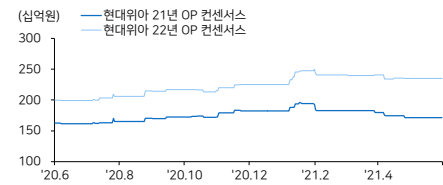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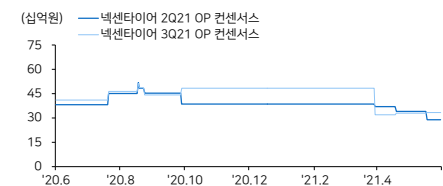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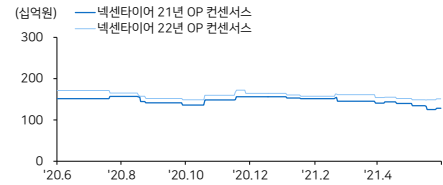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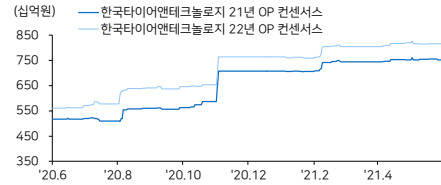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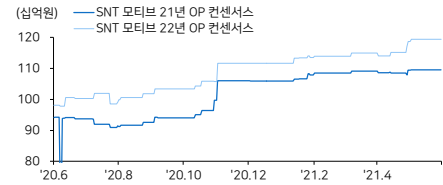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2023년 경형 전기차 출시한다...美보그워너와 협업 (THE GURU)

현대차는 최근 미국 자동차 부품사 보그워너와 2023년 중반 판매를 목표로 개발 예정인 소형(A세그먼트) 전기차 생산을 위한 통합 전기 시스템 iDM 공급 계약을 맺음, 현대차의 전동화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이행 중인 모습.
<https://bit.ly/3g0DyUk>

'고성능 아반떼' 나온다... 현대차 'N 라인업' 18개로 확장 (조선비즈)

현대자동차가 올 하반기에 아반떼의 고성능 모델인 '아반떼N'을 출시할. 2022년까지 다양한 차급별로 총 18개 차종의 고성능 모델을 갖추겠다는 전략. 이러한 전략은 고성능차를 보다 대중화하겠다는 현대차의 의지로 해석됨.
<https://bit.ly/3uVbZyZ>

메이드 인 USA' 전기차 보조금 1300만원대 상향...현대차·기아 수혜 기대↑ (THE GURU)

미국 민주당은 상원 재정위원회에 기본 전기차 보조금은 7,500달러 유지하되 자국생산시 2,500달러 추가, 미국 노조원 생산시 2,500달러를 더 추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함. 법안 통과시 내년부터 현지 전기차 대량생산 계획인 업체 수혜 기대.
<https://bit.ly/2V5AEZg>

전기차 시장 진출한 바이두...첫 전기차 출시 계획 밝혀 (Tech M)

바이두 공식 전기차 시장 진출 선언 5개월만에 첫 전기차 모델 출시 계획을 밝힘. 가격은 약 3,500만원 이상, 2022년 베이징 오토쇼에서 공개할 예정이며, 구매 예약 역시 2022년 이나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언급.
<https://bit.ly/3g5ar2p>

현대차그룹, 양자컴퓨팅 스타트업 '이온큐 투자' 美서 승인 (THE GURU)

현대자동차그룹의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 '이온큐(IonQ)'에 대한 투자가 미국에서 공식 승인됨. 이온큐는 '이온 트랩'을 활용한 양자컴퓨터 구현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23년까지 소형 양자컴퓨팅 장치를 개발 예정.
<https://bit.ly/3wUW1sl>

현대차 엘라베아공장, 15일부터 쉐타크루즈 양산...내달 본격 판매 (THE GURU)

현대차 엘라베아공장은 오는 15일부터 쉐타크루즈 양산을 시작, 북미법인인 이르면 다음달부터 쉐타크루즈를 본격 판매 예정. 쉐타크루즈는 현대차가 북미 시장에 선보인 최초 중형형 픽업트럭으로 미국 현지 전략 모델로 개발됨.
<https://bit.ly/3piWGBc>

빠격대는 애플카, 자율주행 연구 임원 잇따라 퇴사...왜? (데일리카)

블룸버그는 애플카의 자율주행 연구 부문 임원 3명이 지난 몇 달 동안 회사를 떠났다고 밝힘. 이들은 로봇과 자율주행 연구 부문에서 전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던 베테랑들로 수십명의 연구인력과 직원 등도 뒤이어 퇴사할 것이라고 전망.
<https://bit.ly/3wRPiPI>

'라스트마일 잡아라'...글로벌 기업, 배송 로봇 각축 (ZDNet Korea)

라스트마일 시장을 잡으려는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의 움직임이 감지됨. 아마존과 그 대항마로 분류되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징둥(JD) 역시 확대되는 라스트마일 시장 대응 위해 자율주행 배송 로봇 개발 노력 중.
<https://bit.ly/3z08hJU>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